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2월 소식

겨울이 긴 이곳 천산에는 많은 눈으로 가득합니다. 예년과 달리 올겨울은 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 2월 말까지는 눈도 내리고 기온이 낮지만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람들이나 자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따뜻한 날이 되면 나무들이 생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한 것은 실제인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움츠렸던 삶에 더욱 따스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신약 주석 번역 작업의 팀들에게 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빈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건강이 늘 기도제목이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본국인 호주로 3개월간의 휴가를 내어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술했던 골반부분의 수술이 아직 남아서 지난 달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어 회복하고 있고 이곳에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는 다행히 남반구라서 여름기간이라 수술 후 걷기 등 물리치료를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8년이 넘은 신약주석 번역 작업이 10년이 되면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며 현지인 사역자들팀과 함께 꾸준히 주요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쇄소가 연말과 연초에는 관공서의 일들이 밀려서 저희들의 인쇄작업은 3월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더 주의깊게 확인하고 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책으로 받아보게 될 로마서와 욕중서신의 완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이곳은 새학년이 9월에 시작해서 5월말에 끝나는 미국, 유럽의 학제와



모집이 잘되어 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한국인 선생님들 6분이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에 배웠던 학생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첫해를 마칠때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면 1급을 통과하게 되고, 간혹 2급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작년에는 2급 통과한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생들은 올해 3~4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비취켄한국교육원의 시험장 사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록된 몇 명의 학생들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준평가를 해서 수수료증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준을 평가하고 교육부의 수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통해 주말에 특별한 모임에도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막연한 한국에 대한 동경과 열정이 점점 구체화 되어지고 이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곳 키르기즈의 좋은 리더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소망의 집'은 비취켄 남쪽지역의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시청 소유의

공지라서 예전부터 쓰레기등이 쌓여 있던 무허가 창고와 공터인 곳입니다. 현지 사역자 알렉산더 목사가 이들을 데리고 창고에 임시 거처를 삼고 2년전부터 이들이 거주하도록 도우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터의 쓰레기들은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재작년 겨울에 김옥열 목사님을 통해 후원이 연결되어 창고를 수리하고, 침대와 매트리스를 설치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찰을 한 후에 이곳이 시 소유지이지만 당분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어서 소망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거주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늘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위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의 제일 오른쪽부터 세칸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한칸은 완전하게 수리되어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칸을 출입문과 창문, 그리고 난방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지내고, 그리고 또 한칸의 세 번째 공간은 출입문도 없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중독자들과 심하게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 주었습니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로 이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이곳의 생활



규칙을 따르면 지낼 수 있다는 구두 동의를 얻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붕이 있는 거주공간이라면 추위와 관계없이 이들에게 감사한 장소가 되고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결정해서 나가지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위해 이곳의 내부 생활 규정을 정해서 잘 따르고,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단계와 공간을 제공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지 사역자 알렉산더 목사가 이 모든 상황의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리듬은 주로 예전처럼 거리에 다니는 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별도의 직업을 찾거나 사회로의 환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주공간이 해결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이후에 이들 가운데 자체적인 내부의 수리를 위한 용접, 목공등을 알렉산더 목사가 직접 데리고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스케치 장모님은 지난 가을에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 둘째처남이 있는 대구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18년동안 이곳 키르기즈스탄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사시게 되니 모든게 생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둘째처남네가 너무 잘 모시고 있고, 장모님께서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나가셨기에 3월에 한주간 이곳에 다녀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사별의 아픔을 잘 이겨내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딸은 휴학을 하고 이곳에 와서 1년 6개월이상을 지내면서 이곳 사역자 자녀들을 위한 주말학교와 저희 한국어교실(드림아카데미)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기나긴 휴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복학을 하여 남은 학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의 병환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진정한 삶과 안식에 대해 많은 생각과 교훈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봄에는 저희 가족의 모든 삶과 사역에, 그리고 이곳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혜브론, 김엘레나 드림